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 경쟁 불붙었다

전기차 모드로 44km... 장거리 주행엔 가솔린모드 전환 대형마트·영화관 등 공용시설에 충전시설 구축 나서 현대기아차·벤츠 등 잇따라 출시... 친환경차로도 확장

올해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인 PHEV가 전기차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차로 여겨지면서 업체들이 앞다투어 신형 PHEV를 내놓고 있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7월 신형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K5 PHEV)’를 출시한다. 이 차는 이달 초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K5 PHEV는 9.8kWh 대용량 배터리와 50kW 모터를 적용해 전기차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등 두 가지 방식의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2.0 GDI 엔진을 탑재해 전기모터 힘까지 더하면 최대 205마력의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주행 가능 거리가 89km에 이른다. 순수 전기차에 육박하는 18.4kWh 용량의 배터리와 2개의 전기모터 등을 적용한 결과다. BMW는 자사 최초의 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뉴 X5 xDrive 40e’와 3시리즈 기반의 PHEV 준중형 세단 ‘뉴 330e’ 등을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연내 PHEV인 ‘뉴 S 500e’를 내놓는다.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뉴 S500e는 전기차 모드로

30km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HEV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과 배터리,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배터리를 강제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모드의 주행거리를 늘린 친환경차다. 이러한 장점에도 배터리 충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PHEV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이상의 연비를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는 지난해 6월 포스코ICT와 친환경차 공용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공용시설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포스코는 지난해

PHEV 충전시설 220기와 300기를 각각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했다. 현대차는 올해에는 약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2천200여기에 달하는 현대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BMW가 전기차인 i시리즈의 국내 출시와 함께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BMW는 2014년 포스코ICT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이마트 80여개의 지점에 약 120기의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PHEV는 현재까지 나온 친환경차 중 가장 현실적으로 보급 확대가 가능한 차종”이라며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게 될지가 국내 시장에서 PHEV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가 오는 7월 신형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K5 PHEV)’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초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차량을 처음 공개했다. <기아차 제공>

벤츠, 차량모델 등급평가로 보험료 인하 나서

신형 E클래스 보험개발원에 신청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모델 등급평가에 참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나선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달 말 출시하는 10세대 신형 E클래스(사진)의 차량 등급평가를 최근 보험개발원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 인하 폭은 등급평가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차량 모델 등급평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모델별 손상 정도,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손해율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수입업체들이 좋은 등급을 받고

려고 수리·부품비를 자발적으로 낮추게 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제차는 국산차와 달리 등급평가를 받지 않았다. 대신에 관행적으로 모델별·브랜드별 과거 손해율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받아왔다. 보험료가 비싸도 차량이 잘 팔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수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차도 수리비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GM의 ‘임팔라’가 수입차 중 처음으로 등급평가를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받았다. 볼보도 이번 달 출시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올 뉴 XC90’에 대한 등급평가를 의뢰해 평가가 진행 중이다. 폴크스벤도 신형 파사트에 대해 차량 등급평가를 받아 보험료가 20%가량 인하됐다. 또한 벤츠코리아와 수입차 1, 2위를 다

투는 BMW도 조만간 주요 모델에 대한 차량 등급평가를 받아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BMW 측은 “BMW그룹코리아도 차 등급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차종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6 부산국제모터쇼 성료



부산국제모터쇼 관람객들이 가상현실(VR) 장비로 자율주행을 체험하고 있다. <벤스코 제공>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경연장 아시아 최고 자동차축제 변신 성공

행사장 도심으로 확대 10일간 방문객 70만명

‘2016 부산국제모터쇼’가 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벤스코는 지난 3일 일반관람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부산국제모터쇼’에 10일간 7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했다. “미래의 물결, 감동의 기술”이란 슬로건을 내건 올해 부산모터쇼에는 국내외의 25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해 신차 49종을 포함 차량 230여대를 선보였다. 참가업체와 전시면적이 2014년도에 비해 14% 증가했고, 신차는 40% 이상 늘어났다. 부산모터쇼는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고급 SUV 등 미래 자동차를 엿볼 수 있는 경연장이었다.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기아 쏘울 EV, 제네시스 G80,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E클래스, 도요타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 르노삼성과 도요타 1인용 전기차 ‘트위지’와 ‘i-ROAD’ 등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관람객들은 가상현실(VR) 장비로 자율주행을 체험했다. 부산모터쇼는 국민 자동차축제에서 아시아 최고 자동차축제로 변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을 했다. 올해 처음으로 행사장을 벤스코 전시장에서 벗어나 부산 시내 일원으로 확대했다. 일반도로에서 모터쇼에 공개한 신차와 전시차를 시승하고 오프로드 체험행사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코트리아 연계한 부품용품업체 수출상담회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350여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수출상담 금액이 5억4600만 달러에 이르고, 3200만 달러에 가까운 계약도 달성했다. 벤스코 관계자는 “올해 신차 시승 행사 등 외부 부대행사 반응이 좋아 2018년에는 행사장을 부산 전역으로 넓혀 오토캠핑, 자동차경주 등 각종 모터스포츠와 레저 체험행사를 만들고 공연을 비롯한 축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독일에 카셰어링용 수소전기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독일에 카셰어링용 수소전기차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 있는 린데(Linde)사 사옥에서 양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카셰어링용 ‘ix35 FCEV(국내명 투싼 수소전기차)’ 50대를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세계적 가스기업인 린데는 이들 수소전기차를 오는 16일 새롭게 출시하는 계열사 ‘비제로(BeeZero)’의 무공해 카셰어링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비제로는 뮌헨과 주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린데 사와 협업을 통해 ‘비제로’라는 획기적인 무공해 카셰어링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무공해 이동수단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경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산부동산 북구 문흥동 939-1 (현대아파트 사거리 농협옆) 아파트 주택 원룸 토지 임차 매매 대표 홍계희 ☎010-5633-6600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침, 수족침, 이침) ☎062)432-1324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할.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폼비틀스크린, 전동블라인드, 우드블라인드, 실사블스크린의, 허니콤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평등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대표 오순옥 ☎062)266-7200	우정미술관 동구 금남로 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성수 ☎062)383-8408	교원 L&C 광주센터 북구 신안동 광주역역 교원빌딩(구고려시멘트)3층 웰스정수기, 비데, 청정기, 전기렌지, 연수기 판매 및 렌탈상담전문 화장품, 효소홍삼 취급/매니저수시 모집 ☎010)2681-606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6-9번지(범원빌딩) 하모(잡장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대우사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10-6 (남동30) 카다로그, 포스터, 디자인, 판촉물 인쇄전문 대표 고광백 ☎062)232-0092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광주간호학원 동구 금남로 17가 19-1 천하빌딩 4층, 전원취업 알선 국비 간호 조무사 모집 일반주·야간 대표 윤상현 ☎062)222-5353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9-2 (중흥동 평화선입구) 일반미·참쌀·보리쌀·현미·서리태 팔·들깨·녹두·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원 ☎062)267-0101, 010-3609-711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웰스정수기(렌탈) 광주센터 북구 신안동 광주역건너편 교원빌딩3층 미네랄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전기렌지(독일)렌탈 일시불상담 및 관리매니저모집 ☎010-5115-5305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 인테리어 소품, 의상 지수 수선 한복, 마크수, 한우 예쁜 지수리품 26년 경력 의류 지수 대표 고진선 ☎010-8261-5205	미래나눔공인중개사 동구 광산동 56번지 2층~3층 수익형 빌딩, 프랜차이즈, 토지, 상가 매매 및 임대 대표 주승일 ☎062)227-2249, 010-3605-5571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6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해뜨는 집 동구 대의동 78-3번지 전일빌딩 뒤 고등어구이 정식, 목욕지 등뼈찜 목욕지 고등어말이, 고추장 양념구이 (야간) 각종 술안주 일체 대표 박현희 ☎062)228-9233